

대선 D-49...진보 진영 대진표 윤곽

이재명, ‘성장행보’... 김동연·김경수 보폭 넓혀

‘권리당원 50%·국민여론 50%’를 확정...김두관 “불참”
혁신당, 독자후보 내지 않기로...진보당, 후보 선출 채비

제21대 대선을 50일 앞두고 범진보 진영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에 도전하는 구도가 됐다.

▶관련기사 4면

다만 일부 대항마가 ‘경선 물’에 반발해 불참하고 나선 데다 소수 정당들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 범진보 진영 구도를 흔들만한 변수도, 경선으로 얻게 될 컨센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물은 온라인 투표에 부쳐 확정했다.

경선 물이 확정되자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종하고 부끄럽지만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 경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원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다. 당에서는 후보 측과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를 발표했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이 결정한 경선 물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발을 닦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경선 참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께 실망하게 했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면서도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아쉽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대, 20대 대선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참여 의사를 밝힌 일반 국민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국민경선’을 시행했다.

새로운 경선 물은 마련한 민주당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3일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고, 역선택 방지와 당원 권리 강화를 반영해 21대 대선 경선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전 대표가 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범진보 진영에서 출마가 점쳐지던 후보들은 연이어 뜻을 접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임시 의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지난 6일, 전재수의원은 지난 13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이날 각각 “정권교체에 힘쓰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원내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한창진 사회민주당 대표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 전 대표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도 싱거워지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야성을 흔들 주자는 없

을 전망이다.

민주당 경선을 통한, 또는 경선 이후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한 컨센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자부하던 국민경선제도를 단 한 사람만을 위해 폐기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과자’이자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 추대식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퓨리오사’를 방문하기 앞서 “정부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돼 AI(인공지

능) 관련 예산을 선전국을 넘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오후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오후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NEWS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전남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

370억 투입...26개 사업 추진

전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370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 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특히 전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03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1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14개소, 마을진입로 과속 방지시설 5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13개소 등 최첨단 안전시설에도 15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카자흐·몽골서 수출시장 개척

지역 중기 10개사 참여...의료기기·미용 등 공략

수출 상담 109건 977만 달러 등 시장 다변화 성과

광주시가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는 ‘독립국가연합(CIS) 해외시장개척단’이 최근(3월 31일~4월 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상담 109건·977만 달러, 양해각서(MOU) 11건·140만 달러, 수출계약 2건·152만 달러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고환을,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대응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세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를 비롯해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개최, 현지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 중소기업 10곳과 함께 ‘독립국가연합 해외시장개척단’을 꾸려 수출상담회를 열어 지역 중소기업

의 수출거래선을 모색하고, 독립국가연합 시장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개척단에는 ㈜자성테크원, ㈜나눔테크, ㈜노보인타내셔널, ㈜노아코스메틱, ㈜라피네제이, ㈜서치, ㈜소프트웬스, ㈜원솔루션, 농업회사법인 유기능마루, 한국제다 등 종합소비재 품목의 지역 중소기업 10곳이 참가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자동삼장충격기를 제조하는 ㈜나눔테크가 14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 데 이어 화장품을 제조하는 ㈜라피네제이는 1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LED파부마용기기를 제조하는 ㈜소프트웬스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각각 51만 달러, 2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이끌어내며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가장 높은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또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제조업체 ㈜원솔루션도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각각 14만 달러, 125만 달러 수출상담 성

과를 보였다.

광주시는 이번 수출상담 및 MOU 성사를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 해외물류비, 해외지사화, 무역보험료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독립국가연합(CIS)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 시장 이해도와 실질적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독립국가연합 전문 물류기업의 물류창고와 카자흐스탄 대표 식품 제조기업을 잇따라 방문, 현지 물류·유통 실태와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주재희 경제장업국장은 “세계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출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국가연합(CIS)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991년 까지 소련연방의 일원이었던 독립국가 11개국을 말한다. 이번 독립국가연합(CIS)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역에는 몽골이 포함됐다.

장성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전남지방우정청

외국인 근로자·수출기업 지원 맞손

전남도는 14일 도청에서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동정)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특급 우편(EMS) 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원, 다문화가족 등의 고향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소량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이용 시 우편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우정청은 이용 대상자 확

대,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정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과 수출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지방우정청과 전남도청의 협력이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공적 역할 강화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



전남도는 14일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동정·왼쪽)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한 국제우편 서비스를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사람과 도시

그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음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빗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S&B등급 보도용 방충 울타리(설치의무화)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용 방충울타리 적용(7종만족)
보도폭 확보 용이

빗물 저류 침투

· 블록형 경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물러 가이드레일

개방형 가이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HANGL (주)한길산업

본 사 1(공정) 전남 영광군 화교면 화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소 2(공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유엔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